

2007 세계 한인회장대회 축사

한인회장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고국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올해 한인회장대회는 어느 해보다 더 기쁘고 뜻 깊은 것 같습니다. 우선 대회 규모가 역대 최대라고 들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새로 참석하신 만큼 더욱 건설적인 논의들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 하나 뜻 깊은 일은 올해 '세계 한인의 날'이 새로 제정된 것입니다. 앞서 한인회장님께서 정부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오히려 우리 정부가 해외동포 여러분께 감사드릴 일이 참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늘 고국의 일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 주셨습니다. 군사독재 시절에는 조국의 민주화를 위해 힘써 주셨습니다. 외환위기를 비롯해 나라의 큰 일이 있을 때마다 팔을 걷어붙이고 끈끈한 동포애를 발휘해 주셨습니다.

제가 해외에 나갈 때마다 잘 대접받는 것도 동포 여러분 덕분입니다. 제가 만난 지도자들은 하나같이 우리 동포들이 현지 사회에서 큰 존경과 신뢰를 받고 있다며 칭찬에 입이 마를 정도입니다. 문화도 다르고 말도 잘 통하지 않는 이국 땅

에서 성공하기가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 온갖 어려움을 이겨 내면서 남들보다 몇 배는 더 땀 흘려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세계 한인의 날 제정을 계기로 동포사회의 발전사를 우리 역사의 자랑스러운 일부로써 기리고, 다양한 행사를 통해 동포 상호 간에 이해와 교류의 폭을 더욱 넓혀 나가면 좋겠습니다. 정부도 세계 한인의 날이 우리 동포들의 큰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참석자 여러분,

우리 동포사회는 불행하고 아픈 역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분열과 부패로 백성을 도탄에 빠뜨린 지배세력이 나라를 지킬 힘마저 없었던 상황에서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나라를 되찾기 위해, 그리고 먹고살 방도를 찾기 위해 만주로 연해주로, 그리고 먼 이국 땅으로 떠나야만 했습니다. 끼니를 걱정하던 보릿고개 시절에는 광부와 간호사로 낯선 땅을 밟았고, 농사 한 번 제대로 지어 보자고 지구 반대편까지 가기도 했습니다. 독재정권의 탄압과 횡포에 맞서 싸우다가 많은 사람들이 돌아올 기약도 없이 정든 조국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대한민국은 스스로를 지킬 만한 충분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 12위의 경제 규모를 자랑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수출 4천억 달러, 국민소득 2만 달러를 이제 눈앞에 내다보고 있습니다. 아마 올해를 넘기면 될 것입니다. 개방과 혁신으로 경쟁력을 높이고, 복지투자를 통해 미래를 착실히 준비해 가고 있습니다.

민주인권국가로서 세계의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아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적어도 독재·고문·공작정치·언론탄압·정경유착, 이런 부끄러운 말들은 모두 지난날의 일이 되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여러분이 어디 가서도 당당하게 자랑할 수 있고, 여러분이 하시는 일에 적으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걱정하시는 북핵문제는 9·19공동성명과 2·13합의를 통해 평화적 해결의 길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아마 확실히 들어선 것 같습니다. 4년 전에는 한국과 미국이 의견이 달라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의견이 같아졌습니다. 미국이 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같아진 것이 아니고 한국정부가 주장하는 방향으로 미국정부가 의견을 조정했습니다.

남북관계도 실질협력을 확대하면서 신뢰를 쌓아 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남북 교역이 13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개성공단을 방문해 보시면 남북 교류협력이 어디까지 진전되고 있는지 생생하게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가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물론 한국경제에 또 다른 새로운 기회가 열릴 것입니다.

한·미관계는 일방적인 의존관계에서 상호존중의 협력관계로 나날이 다르게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용산 미군기지를 이전하면 그곳에는 역사공원·세계평화공원이 들어설 것입니다. 세계에 자랑할 만한 아주 아름다운 공원으로 꾸며질 것입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같은 해묵은 과제들도 잘 풀어 왔습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국내에는 많이 있었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조금도 안정이 흔들리는 일 없이, 안보 역량에는 조금도 영향이 없이 잘 되어 갈 것입니다. 균형외교를 통해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했습니다.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상당히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대한민국은 지금 모든 분야에서 좋은 방향으로 한발 한발 나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에게 더 든든하고 자랑스러운 조국이 될 수 있도록 국내에 있는 우리 국민들도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한인회장 여러분,

700만 해외동포는 우리 대한민국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인구 대비로 세계 세 번째 규모, 전체 총 규모로는 다섯 번째라고 들었습니다.

우리 동포사회를 세계적인 네트워크로 연결해서 유대를 증진해 나간다면 동포 여러분의 성공은 물론 대한민국 발전에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정부는 우리 동포의 권익을 보호하고, 모국과 동포사회 간, 그리고 동포사회 상호 간에 긴밀한 연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한민족으로서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민족교육을 적극 지원하고, 방문취업제 등을 통해 경제 발전의 혜택을 동포들과 함께 나누는 일에도 힘써 나갈 것입니다. 동포 여러분이 고국을 왕래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법과 제도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이 곧 대한민국의 성공입니다. 하시는 일마다 더욱 번창하시고, 고국에 반가운 소식 많이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대회를 거듭 축하드리며, 여러분 모두 즐겁고 보람된 고국 방문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